〈부모은중경〉 복각 원력 승보공양으로 회향

전주 금선암, 10월 17일 보은법회

교구 승려복지기금 1억원
정각복지센터 기금전달도
불자효행상 등 시상 · 지원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선암 자비공덕회는 이날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에게 교구 승려복지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이 중창주인 금화당 초안 스님의 유품인 전북유형문화재 270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복각을 기원하며 원력을 승보공양 등에 회향해 훈훈함을 전했다.

전주 금선암은 10월 17일 금선암 극락보전에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복각 기원 및 보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부모은중경〉 독경과 〈보배경〉 낭독, 경과보고, 봉정, 복지센터 후원금 전달 및 효행상 시상식, 제17교구본사 승려복지기금 전달, 축사, 승보공양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는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무주 백련암 주지 평상 스님, 영진 스님, 완주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김제 흥복사 주지 공해 스님 등 스님들과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 여사, 김희수 전북도의원, 안준아 신도회장, 김용수 전북포교사단장을 비롯한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여법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날 봉정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목각본〉은 금선암 중창주인 금화스님이 평생 소장한 유품으로, 탄신 100주년을 맞은 2020년 문화재 신청을 통해 전북무형문화재 270호로 지정됐다.

금선암은 문화재의 영구보존을 위해 복각불사를 진행해 왔으며, 총 14판본 중 3본을 완성하고 이날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때문에 이날 법회는 목각본 3본의 봉정을 기념하는 동시에, 나머지 11본에 대한 복각불사를 원만회향하는 발원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선사측은 2022년 중 복각을 회향한다는 목표다.

이날 법회에서 금선암 자비공덕회는 조계종 17교구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에게 제17교구본사 승려복지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이어 익산 정각사 정각복지센터 일행 스님에게도 후원금 3백만원을 전달했다. 임승원 불자에 대해 효행상을 시상하는 한편, 교계 언론인들에 대한 격려상 시상도 이어졌다.

금선암 마당에서는 이날 참석한 대덕스님들에게 금선암 불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물품을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승보공양 법회가 진행됐다.

주지 덕산 스님은 "중창주 금화당 스님의 유품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가르침과 금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잊혀져 가는 효행사상을 기리기 위해 복각불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사업이 완성된 후에는 효행사상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그 일환으로 17교구 승려복지기금 전달과 정각복지센터 후원금 전달, 효행상 시상을 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의미를 전했다.

법석에 함께한 스님들의 치사도 잇따랐다.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부모은중경〉 복각은 주지 덕산 스님의 서원이자 중창주 스님의 유지"라며 "오늘 법회를 계기로 부모님을 가장 고맙게 생각하기를, 또한 효도를 다하고 마음을 편안케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영 스님은 이어 "17교구 승려복지기금의 전달은 금산사 교구 승려복지의 발전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님들의 가장 큰 걱정인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고 치하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효행은 불자의 가장 큰 덕목으로 오늘을 계기로 효행운동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금선암 대중이 쾌척한 승려복지기금을 바탕으로 금산사 말사와 재적스님들을 위한 복지기금을 모으고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노후수행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스승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를 갚으며 수행하리라 서원했었다"며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리며 덕산 스님의 수행과 불사의지를 보며 큰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졸업 20년 맞아 후배스님 위한 장학금

송광사 12기 동문스님
강원에 기금 1000만원



20년 전 강원을 졸업한 선배 스님들이 후학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전했다.

순천 송광사(주지 자공) 강원 12기 동문들은 10월 20일 졸업 20주년을 맞아 강원 후배인 학인 스님들을 위한 장학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한 졸업 동문은 법오 스님과 보각 스님, 보원 스님, 설각 스님, 연광 스님, 정산 스님, 화진 스님 등 7명이다. 스님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학 연찬과 후학 양성에 애쓰시는 강주스님과 강사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학인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해 한국불교를 위해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날 송광사 강원 9기 졸업생 본연 스님도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해 학인 스님들을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인사 원당암, 영가 합동천도법회

10월 14일 중양절 맞아



해인사 원당암이 10월 14일 중양절을 맞아 '선망부모 조상영가 합동천도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천도법회는 9일 기도 회향을 맞아 경내 보광전과 만년위패가 모셔진 원당에서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을 법사로 모신 가운데 봉행됐다. 보광전에서 시련을 시작으로 대령과 관욕, 상단헌공, 봉송 등으로 이어져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이 자리에 동참한 인연들은 선망부모와 인연영가, 유주무주 고혼들의 극락왕생 발원을 위해 본래 마음자리 바탕에서 금생에 내 마음을 깨우쳐야 한다"며 "생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업에 끄달리지 말고 내 마음 자리를 깨닫고 복을 많이 지어, 응당히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고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닌 부처님법을 굳게 믿어 생사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가을 산사서 생명나눔 선율의 향연이 펼쳐지다

불암사와 함께하는
생명나눔산사음악회
10월16일 특별무대서
일면장학금 수여식도



"상하이 상하이 트위스트~ 짝짝짝"

10월 16일 오후 5시 경기도 남양주 불암사 경내서 마련된 특설무대서 신인가수 김선준씨가 하얀색 양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상하이 트위스트' 노래를 부르며 가벼운 율동과 함께 흥을 돋운다. 이곳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마련한 '제 13회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현장이다.〈사진〉 이번 음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속에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일면장학금 수여식을 시작으로 본 행사가 시작됐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학인 스님과 불자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면장학회는 이날 행사에서 학인 스님 10명, 학생 10명 등 총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9세 환아에게 300만원의 치료비 지원 전달식도 가졌다.

이외에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공로로 이현진 트롯 투표-리매치 대표에게 생명나눔 유공장이 수여됐다. 또한 2014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에 앞장서는 동국대 참사람사회공헌센터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참사람사회공헌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캠페인에 많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했다.

또한 생명나눔실천 대구지역본부장 미수 스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을, 심산 스님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임명장을 받았다. 법인 발전기금으로 법인 이사이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이 500만원을, FC생명나눔 축구단장이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추성호 부회장이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생명나눔 음악회는 단순한 문화공연을 넘어서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되는 자리이다. 앞으로도 장기기증문화 및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불암사는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행사 뒤에는 법인 홍보대사인 이익선 아나운서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단장 명선화)'의 아름다운 춤사위를 시작으로 가수 주권기, 강혜연, 윤태화, 황우림, 배아현 등이 열창하며 무대를 후끈 달궜다. 그 열기는 국화향 가득한 불암사의 가을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남양주 불암사=김주일 기자

천도의식으로 위안부 피해자 넋 위로

광주영산재보존회,
10월 20일 광주시 지원으로
영가 극락왕생 · 평화발원해


(사)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가 10월 20일 법륜사에서 봉행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령재'.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법석이 마련됐다.

(사)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대표 월인)는 10월 20일 광주 서구 법륜사(주지 월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령재'를 개최하고, 희생된 영가를 위한 천도의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수자 월인 스님, 호산스님(광주 세심정사 주지)을 비롯해 보존회 10여명과 광주 서구청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가를 모시는 시련을 시작으로 신중작법과 상주권공과 바라춤, 나비춤, 권공, 축원, 시식 등이 진행됐다.

월인 스님은 "위안부 희생자와 징용 근로자, 그리고 당시 수많은 원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미로 진행한다"며 "이분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한국사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전통불교연산재보존회는 광주 서구청(청장 서대석)의 지원으로 올해 5회째 위안부 피해자 위령재를 지속적으로 봉행해 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종도모집

종정 보명당 석원정

총무원장 석자운 승정원장 석보경 종회의장 석월암 원로의장 석선학

승 정 석법일, 석법광, 석도암, 석덕인 원로위원 석일현, 석대원, 석도명, 석보성, 석혜림, 석법안, 석해진

총무원장 석자운 감찰원장 석도관 호계원장 석도일 교육원장 석도관 총무부원장 석화성 기획원장 석정현
문화원장 석현법 포교원장 석도명 비구니원장 석정인 비구니부원장 석서정 법계고시원장 석유심 사서실장 석법성

각 교구원장

부산동종무원장 석혜명 대구 종무원장 석진성 김해 종무원장 석법원
부산서종무원장 석경일 밀양 종무원장 석경오 영천 종무원장 석혜심
창원 종무원장 석혜일 전남 종무원장 석현경 제주 종무원장 석경담
마산 종무원장 석법상 경남 종무원장 석혜운 전북 종무원장 석해산
울산 종무원장 석진공 강릉 종무원장 석원공 광주 종무원장 석청오
칠곡 종무원장 석현승 경북 종무원장 석화성 인천 종무원장 석지원

전국신도회

중앙신도회회장 양주석(慈光) 중앙신도부회장 장광옥(法雲)
사무총장 강위석(慈明) 고문 이효근(普泉), 장금석(定慧)
신도회장 안희윤(普德行) 신도부회장 윤현옥(金剛行)
신도총무 변성희(大德信) 감사 최호연(淸眼)

종단법률 자문위원

변호사 김영길, 심규명, 이승현 법무사 이기동 세무사 김정석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 외부사진
– 반명함 사진 3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취

총무원 TEL 052·247·4848 H·P 010·3565·2462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총본산 마하사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642 ☎ 052·247·4848